

손기정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 내용 연구

허진석 *(순천향대학교)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Sohn Kee-Chung at the Berlin Olympic Marathon

Huh, Jin-Seok (Soonchunhyang Univ.)

요약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일본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공식 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기온은 21.0°C~22.8°C였다. 이는 30°C 이상의 고온이었다는 국내 문헌과 일치하지 않는다. 경기 구간은 표고차 48.4m 정도로 평탄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헌에 등장하는 ‘비스마르크 언덕’은 공식 기록에 없다. 손기정은 20km~30km의 장거리 달리기, 우승후보 사발라는 5000m와 1만m 달리기 위주로 훈련했다. 손기정은 경기복에 382번을 달고 ‘가나구리 타비’를 신은 채 출전하여 28km와 31km 지점 사이에서 선두에 나섰다. 공식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2로 올림픽 신기록이었으며 2시간 30분의 벽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손기정은 경기를 하는 동안 최소한 두 차례 수분을 공급받았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급수대 및 기록석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당시 서구 언론은 손기정의 정체성에 무관심했고, ‘작은 일본인’이라고 표현하였다. 당시 중계방송 녹음에서 손기정을 ‘한국인 학생’이라고 부른 사례가 있다.

Abstract

Sohn Kee-Chung won the Olympics Marathon in Berlin as a representative from Japan in 1936. The temperature of the day shown in the official record was 21.0°C~ 22.8°C. It is not accorded with national reference which recorded it higher than 30°C. The course was flat and about 48.4m differences in elevation. ‘Bismarck hill’ which appeared in the reference both Korea and Japan was not on the official record. Sohn had trained focused 20km~ 30km long-distance running. By the way the favorite Zabala had trained mainly 500m and 10000m running. Sohn had taken the lead between 28km and 32km points with a play suit attaching No.382 and ‘Kanaguri-Tabi’. The official record was 2h 29m 19s2. It was the Olympic record and the first time broke through the walls of 2hours and 30 minutes. Sohn was supplied water at least two times during the race. Also the position of aid station and record point was confirmed while researching. Western media at that time was not interested in the identity of Sohn but only described as a ‘small Japanese’. There was a case that radio broadcast called Sohn as ‘Korean student’.

Key words : Sohn Kee-Chung, Berlin Olympic Marathon, Race, Gold Medal, Identity

* huhball@hanmail.net

I. 서론

이 연구는 1936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제 11회 올림픽 경기대회의 마라톤 종목에 일본 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孫基禎, 1912. 8. 29 ~ 2002. 11. 15)을 중심주제로 다룬다. 특히 손기정이 올림픽 출전했을 당시 세계 최고기록을 보유한 당대 최고 수준의 마라톤 선수로서 구현한 경기력의 탁월함에 대한 검토와 확인, 분석을 통하여 그가 구현한 경기 내용을 명료하게 재구(再構)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손기정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의 뛰어난 마라톤 선수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적 체육영웅이다. 또한 그는 2013년 현재까지 일본의 유일한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로 기록되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손기정은 육상 종목의 한 종류인 마라톤의 태두리를 넘어 한국체육의 아이콘(Icon)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를 둘러싼 아우라는 ‘비운의 마라토너’, ‘조국을 잃은 슬픈 금메달리스트’,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인공’ 등 일련의 이미지로 충만하다. 국가적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점 통치에 따른 희생자인 동시에 질곡을 딛고 일어난 승리자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손기정의 움직일 수 없는 명성은 ‘한국마라톤계의 영웅’, ‘한국육상계의 영웅’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30분의 벽을 돌파해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통치 아래 놓인 한국인들의 울분을 씻는 한편 민족의식을 새삼 고취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로 집약된다.

손기정은 은퇴한 뒤 지도자가 되어 특히 광복 이후 후진 선수들의 지도에 헌신함으로써 우수한 한국의 마라토너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하

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도 간과할 수 없다. 지도자로서 그의 역량은 광복 2년 뒤인 1947년 4월 19일 제 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이 2시간 25분 39초의 기록으로 우승함으로써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1950년 4월 12일에 열린 제 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함기용·송길윤·최윤철이 1~3위를 휩쓰는 위업을 이루어 손기정의 지도자 경력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토록 다양한 역사적 의미와 아울러 엘리트 경기인으로서 업적과 위상이 선명하기에, 손기정에 대한 연구 및 저술 작업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체육학 부문에서 손기정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일련의 특징을 드러낸다. 그 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주제는 주로 인문·사회학적 검토와 평가, 의미 부여에 치중하고 있다. 즉, 손기정의 민족의식과 항일정신, 그의 우승과 관련하여 파생한 일제강점기 한반도 언론(조선중앙일보 및 동아일보)의 일장기 삭제 사건 등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손기정 관련 연구에 있어 문체의식은 손기정의 생애사와 그 특정한 일부분에 집중되었다. 이는 그의 체육활동, 지도자 활동, 체육사상과 민족의식, 일장기 말소 사건의 경과와 내용 규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 사례도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카를 레나르츠(Karl Lennartz)가 2004년에 발표한 논문 ‘손기정과 스피리돈 루이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의 정치적 국면; Kitei Son and Spiridon Louis, Political Dimensions of the 1936 Marathon in Berlin’이 대표적이다. 레나르츠는 이 논문에서,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마라톤 메달수여식 당시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고개를 갸웃 숙이고 선 젊은 승리자의 모습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에 백발의 노인이 성화봉을 들고 춤을 추듯 달리며 경기장을 메운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장면을 극적으로

대비시켰다.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손기정의 개 인사가 지나는 드라마틱한 원형질은 물론 세계 스포츠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외면하기 어려운 정치적 속성과 그 폭력적 본질에 대해 논구하였다. 레나르츠가 견지한 이 시각은 제국주의 시대의 스포츠를 냉철하면서도 감동적으로 조망하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레나르츠의 시각과 접근 방법은 손기정에 대한 연구의 기존 패러다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반복·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적 연구 이외에 경기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내밀한 연구가 시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손기정은 베를린올림픽이 열린 시기에 세계최고기록 보유자로서 마라톤 종목의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기정이 구현한 경기력과 경기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 가운데 손기정의 훈련 내용과 경기 내용을 다룬 경우는 산재한 자료를 거두어 거칠게 개념만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기정이 어떤 훈련을 거쳐 어떤 재질의 경기복과 경기화를 착용하고 어떤 전략 아래 달렸는지 주목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당시의 날씨와 코스와 난이도, 베를린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마라톤 경기 운영 내용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경기 도중의 수분 공급이나 레이스에 대비한 작전의 수립과 그 변용(變容) 등을 포함하는 디테일에 대한 관심 자체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결과 이러한 항목에 대한 연구는 간과돼 왔다고 본다.

본 연구는 ‘손기정의 마라톤’을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 삼아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서 첫째, 2012년 7월 18~19일 이틀에 걸쳐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슈타디온(Olympiastadion)에서 그루네발트(Grünwald)를 통과하여 아푸스(AVUS) 도로를 왕복하는 올림픽 마라톤 경주 구간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코스 특성에 대한 지리적 분석과 검토 및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베를린 스포츠박물관(Sportmuseum Berlin)과 올림피아슈타디온 등을 방문하여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마라톤 경기를 운영한 조직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기록물 상당수에 대한 열람과 소재 확인도 병행하였다. 그럼으로써 경기 당일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재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넷째, 이를 기존의 국내외 연구 결과 및 베를린올림픽 당시의 국내외 보도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 주제와 수행 방식은 그 동안 시도된 사례를 찾기 어렵기에, 손기정의 탄생 101주년을 맞는 2013년의 시점에서 볼 때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마라톤 선수 손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인문·사회학적 연구에 치우친 손기정 연구의 학문적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라톤이라는 특정 종목에 대한 종목사 연구의 일부로서,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 한국마라톤의 전성기를 잇는 종목 전통의 수립과 아울러 현재의 한국마라톤으로 이어져온 유산을 재발견하고 확대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연과학적 연구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체육영웅의 생애와 활동, 업적에 대한 풍요로운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연구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를 통하여 손기정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정당한 평가와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II. 손기정의 경기 내용

1. 날씨와 훈련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열린 날의 날씨를 대부분의 국내 문헌은 '30°C가 넘는 고온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경기가 시작될 때의 기온은 22.8°C, 끝났을 때의 기온은 21.0°C였고 날씨는 맑고 건조했다. 경기에 영향을 줄 만한 바람도 불지 않았다(Organisationskomitee Für Die XI Olympiade Berlin, 1936: 644). 마라톤 경기에 최적의 기온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C 전후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윌 레피지(Will LePage)는 남자 마라톤 경기에 가장 적절한 기온을 9.67°C(49.4°F)라고 보고하였다(LePage, 2011: 8). 따라서 마라톤 경기가 열린 날 베를린의 기온은 마라톤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올림픽 마라톤 경기와 비교할 때 특별히 혹독한 조건이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황영조가 금메달을 획득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을 때 기온은 26.6°C, 이봉주가 준우승을 기록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마라톤 경기 당일의 기온은 23°C였다(Martin · Gynn, 2000: 174, 398, 431).

1932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마라톤에서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사발라(Juan Carlos Zabala)가 우승했을 때 출발 시간의 기온이 22.2°C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올림픽에서도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사발라가 승리를 낙관한 나머지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다 탈진하여 기권하고 말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베를린의 기온은 사발라가 우승할 때 로스앤젤레스의 기온과 매우 흡사

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선두에 나서서 공격적인 태도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사발라의 경기 운영 방식은 4년 전인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다(Martin · Gynn, 2000: 155~156). 그는 선두 그룹에서 출발하여 14.5km 지점에서 멕시코의 마르가리토 폼포소(Margarito Pomposo)에게, 25.7km 지점에서 핀란드의 라우리 비르타넨(Lauri Virtanen)에게, 32.2km 지점에서 영국의 던컨 맥러드 라이트(Duncan Mcleod Wright)에게 선두를 내주는 등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그때마다 선두를 되찾고 끝내 우승을 한 강인한 주자(走者)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기온은 사발라가 경기를 포기한 유일한 이유라고 간주하기 어렵다.

사발라와 손기정의 승부를 가름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훈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에서 파악된 사발라의 훈련 내용은 일본 마라톤 팀의 훈련 내용과 크게 달랐다. 일본 팀이 20km~30km의 장거리 달리기에 주력한 반면 사발라는 5000m와 1만m 달리기 위주로 훈련하였다(鎌田忠良, 1988: 250). 현대 마라톤에서는 대체로 거리주 훈련(먼 거리를 달리는 훈련)을 해서 지구력을 강화하고 5000m나 1만m 달리기 훈련으로 스피드를 보장하는 훈련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Wong, 2009: 8~11). 5000m와 1만m 위주로 구성된 사발라의 훈련은 지구력 부분에서 약점을



그림 1. 손기정(왼쪽)과 남승룡의 훈련.
출처: 베를린올림픽 공식 기록.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발라가 이러한 훈련 방법을 베를린에서만 선택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5000m와 1만m 달리는 수행 방법에 따라 지구력 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사발라의 기권은 몸의 상태를 경기 당일에 최선으로 유지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발라는 아르헨티나 선수로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베를린의 시차는 다섯 시간이나 되지만 사발라가 올림픽이 열리기 약 1년 전부터 베를린에 머무르면서 훈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鎌田忠良, 1988: 250) 이동거리와 시차는 변수로 보기 어렵다.

마라톤 경기가 열린 날 베를린의 기온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폭염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베를린의 기온을 고온으로 기록한 저자들이 적지 않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연구자들과 언론 매체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저작물이 손기정의 자서전적 기록물인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이다. 그는 이 책에서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북해의 바람 탓인지 끈끈한 기온이 온몸을 감쌌다.”라고 기록하였다(손기정, 1983: 130). 그의 기록은, 기온은 물론 맑고 건조했다는 올림픽 공식 기록의 나머지 기상 조건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손기정이 당시의 기상 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주위로부터 전해들은 정보인지, 자신이 체감한 온도를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기 환경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실제보다 강하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광복 후 처음으로 참가한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표로 출전한 최윤칠 역시 경기 당일 날씨를 혹독한 고온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2012년 7월 27일 『CBS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였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38도, 39도.”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마라톤 경기가 열린 1948년 8월 7일 오후 세 시에 런던의 기온은 22.8℃, 습도는 60%였으며 바람이 불고 구름이 낀 날씨였다(Martin · Gynn, 2000: 192).

손기정의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은 베를린 올림픽이 열린 지 47년 뒤인 1983년에 발간됐다. 일본어에 능한 손기정은 책을 쓸 때 자신의 기억에 많이 의존하는 한편 일본의 신문 또는 잡지 등을 주로 인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두현이 1997년에 쓴 『베를린의 월계관』은 손기정의 저서를 매우 적극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두현 역시 마라톤 경기가 열린 날 “기온은 섭씨 30도로 무더운 날씨여서 이날의 마라톤이 고된 경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적었다(고두현, 1997: 274~275). 이들의 영향은 매우 커서, 훗날 등장하는 상당수의 문헌에 반영되었고 2000년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이렇다 할 반론이나 비판 없이 반복되고 있다. 천정환은 “베를린은 오후 3시 2분,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였다.”라고 적었다(천정환, 2005: 45). 이태영도 ‘마라톤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고온다습한 날씨와 막판의 언덕’이라고 언급한 다음 손기정이 경기에 참가한 날의 기온이 30℃를 웃돌았다고 적었다(이태영, 2012: 149).

30℃는 한국인에게 한여름 폭염(暴炎)의 상징과도 같은 온도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마라톤 경기가 열린 날 기온이 30℃를 웃돌았으며 마라톤 경기 코스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가정은 매우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 스포츠의 아이콘이자 어떠한 고난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파하여 세계에 기상을 떨친 손기정의 영웅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역사적 의미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라톤 경기의 조건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손기정이 거둔 인간승리, 나아가 한민족이 거둔 승리의 가치는 높아졌겠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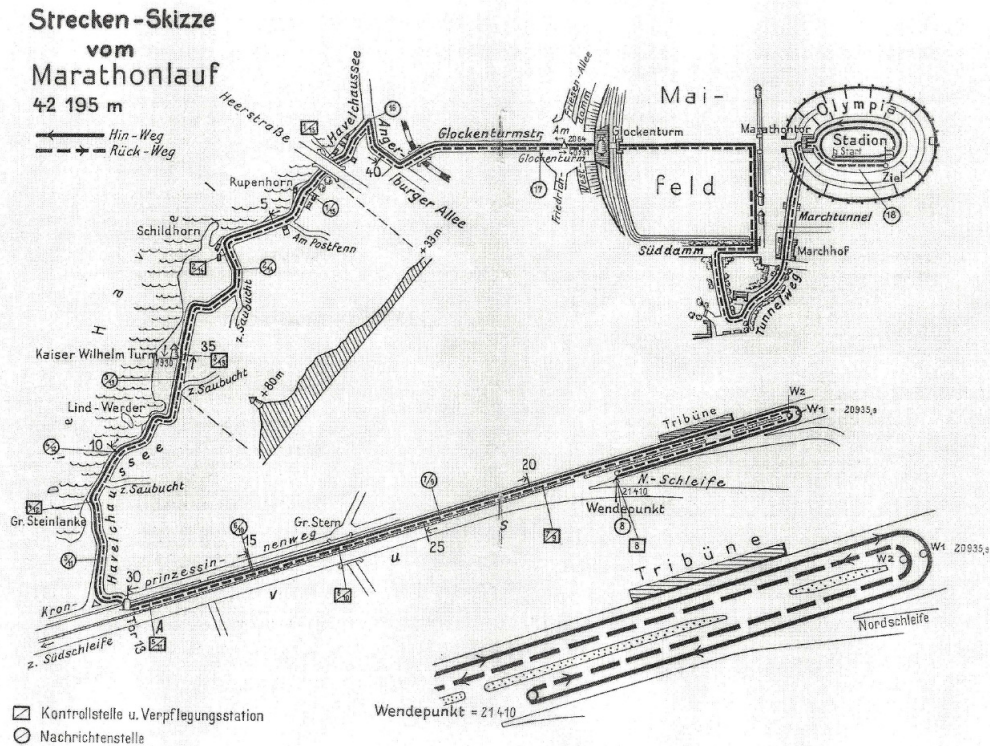


그림 2.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 구간과 통제소 및 급수대(□), 보도석(○)의 위치. 출처: Gerd Steins 제공.

2. 경기 코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주로는 주경기장인 올림픽아슈타디온(Olympiastadion)의 100m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반환점을 돌아오는 왕복 코스로 구성되었다. 선수들은 경기 초반과 중반에 각각 12km에 이르는 그늘진 도로를 달렸다. 이 길이 하펠샤우스제(Havelchaussee)로서 아스팔트 도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쇠석·자갈·모래 등을 사용하여 매우 잘 정비돼 있었다. 하펠샤우스제는 그루네발트(Grunewald)의 숲길을 따라 이어지며 반환점을 향하여 달릴 때는 하펠호수(Havelsee)가 오른쪽에, 돌아오는 길에는 왼쪽에 보인다. 그루네발트는 다양한 수종이 밀생하는 울창한 숲이다. 경기가 시작된 오후 세시 이후

하펠샤우스제의 숲속 길은 상당 부분이 길은 그림자에 덮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마라톤 구간 가운데 22km 구간은 완전히 그늘이 졌고(shaded completely), 16km 구간은 부분적으로 그늘이 졌다(partially shaded). 그루네발트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아푸스 자동차전용도로(Avusrennstrecke)가 시작되며 콘크리트로 덮인 직선 주로(走路)를 달려 반환점을 돈 다음 다시 이 지점에 돌아올 때까지 거리는 약 17km다(Organisationskomitee Für Die XI Olympiade Berlin, 1936: 644~646). 아푸스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고속도로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마라톤 경기가 열렸을 때에는 군데군데 그늘이 진 상태였다. 콘크리트 길이 직선으로 뻗은 아푸스 자동차전용도로는 선수들이 지루함을 느

끼기 쉬워 달리기엔 매우 힘들었을 수 있다.

베를린올림픽의 마라톤 코스는 대체로 평탄하다(Martin · Gynn, 2000: 169). 가장 낮은 지점이 해발 31.6m,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80m이다. 올림픽이슈타디온의 해발고도는 55.6m이다. 특기할 만한 고지대는 올림픽이슈타디온을 출발해서 4.7km~8km 지점, 반환점을 돌아 올림픽이슈타디온으로 돌아가는 길의 33.2km~34.2km 지점이다. 이 언덕 위 약 35km 지점에 카이저 빌헬름 툼(Kaiser Wilhelm Turm; 또는 Grunewaldturm)이 우뚝 서 있다. 이 오르막 구간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곳은 30m/km로 기록되었다. 카이저 빌헬름 툼을 뒤로 하고 해발 33m 지점까지 내리막길을 달리면 37km 지점에서 쉴드호른(Schildhorn)의 북쪽을 지나치면서 39km 지점에서부터 하펠샤우스제를 벗어나 앙어부르거알레(Angerburger-Allee)를 거쳐 라이히 슈포르트 펠트(Reich Sport Feld)를 향해 가는 마지막 오르막길이 나온다.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고도는 70m이다. 40km 지점에서 S자 모양으로 휘어지는 이 도로의 명칭은 글로켄툼슈트라세(Glockenturmstraße)이다. 손기정에 대한 각종 문헌들은 이 두 언덕을 매우 강조하면서 손기정이 고통스럽게 달렸던 것으로 묘사해왔다. 특히 ‘비스마르크 언덕’이 자주 등장하는데, 손기정은 “40km 지점을 눈앞에 바라보며 마지막 비스마르크 고갯길에 접어들었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6분여나 뛰어오르는 이 고갯길이 “울창한 나무숲으로 우거져 마루티이 공중에 난 들창처럼 뺨 뚫려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하였다(손기정, 1983: 136). 가마다 다다요시(鎌田忠良)는 “37km가 지나면 최후의 난소(難所)인 비스마르크 언덕(ビスマルク坂)에 다다른다.”라고 썼다(鎌田忠良, 1988: 323). 고두현도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 언덕은 37km 지점부터 시작된다.”라고 썼다(고두현, 1997: 294). 또한 1936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

1면의 상보(詳報)에도 비스마르크 언덕이 등장한다. 『동아일보』는 “이 코스의 가장 난관인 뺨스막 언덕으로 올라설 고개의 난코스”라고 표현하였다.

베를린올림픽 공식 기록집에 명기된 마라톤 구간에 ‘비스마르크(Bismarck)’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명은 없다. 베를린 일대로 범위를 넓혀도 중앙역(Hauptbahnhof) 부근에 오토 폰 비스마르크 가도(Otto-von-Bismarck-Allee), 에른스트 로이터 광장(Ernst Reuter Platz)에 잇닿은 비스마르크거리(Bismarck-straße)가 있을 뿐이며 언덕(Hügel)은 없다. 올림픽이슈타디온에서 가장 가까운 비스마르크거리까지 거리는 5km 정도고, 가는 길은 평평하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네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첫째, 비스마르크 언덕은 올림픽이슈타디온을 향한 마지막 오르막길, 즉 글로켄툼슈트라세의 특정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당시 베를린의 지명에 비스마르크라는 지명이 붙은 언덕이 있었으나 이후 지명이 철회되었을 수 있다. 셋째, 베를린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 특히 마라톤 선수들 사이에서 비스마르크 언덕으로 통한 지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빌헬름 1세 황제와 비스마르크의 조각물로 장식된 카이저 빌헬름 툼의 강력한 이미지가 마라톤 선수단의 의식을 지배해 가공의 지명을 창조해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는 비스마르크 언덕이 마라톤 경기 구간 막바지의 특정 구간으로서 선수단(특히 일본의) 사이에 통용된 지명일 것으로 유추하고자 한다. 그루네발트를 통과하는 주로에 하펠샤우스제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해발 80m의 고지대에 카이저 빌헬름 툼이 있기 때문에 이 곳 어딘가에 비스마르크 언덕이라는 공식적인 지명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환점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중에 나타나 카이저 빌헬름 툼 근처의 오르막은 승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던 지점이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선두가 바뀌거나 우승을 다투는 선수들 가운데 누군가 몸이나 경기 운영의 상태가 나빠져서 변수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결국 글로켄투스 트라세와 카이저 빌헬름 톱 지점은 레이스 후반기의 마지막 고비 정도로 작용했다. 물론 이 지점은 손기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특히 반환점을 돌아 올림피아슈타디온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비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글로켄투스 트라세에 있는 오르막 구간은 카이저 빌헬름 톱에서 달려 내려온 가속을 활용하여 비교적 쉽게 주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손기정은 37km 지점에서 2위 하퍼를 60초 차로, 40km 지점에서 87초 차로 앞섰다. 그러므로 이 구간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Organisationskomitee Für Die XI Olympiade Berlin, 1936: 647).

3. 경기 운영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는 8월 9일 오후 세시 2분(현지 시간)에 시작되었다. 경기복에 382번을 달고 출전한 손기정은 6km 지점을 4위로 통과함으로써 공식기록(선두그룹 구간별 기록)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때의 기록은 20분 23초였고, 선두는 사발라였다. 그러나 공식기록은 선두그룹 구간별 순위 항목에서 8km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많은 선수들이 수시로 순위를 달리하며 무리지어 달렸기 때문에 정확한 순위를 측정하기 어려웠다고 기록하였다. 손기정의 구간별 순위와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km까지 4위(27분 36초)로 달린 손기정은 5위로 10km 지점(34분 10초)과 12km 지점(41분 18초)을 통과하였다. 15km 지점에서 4위(51분 55초)로 올라섰지만 이후 28km 지점까지 포르투갈의 마누엘 디아스(Manuel Dias), 타잔 브라운(Tarzan Brown), 영국의 어네

스트 하퍼(Ernest Harper) 등과 각축하며 2~4위를 오르내렸다. 이 구간에서 순위경쟁과 함께 치열한 신경전이 병행하였다.

경기 초반에 하퍼가 손기정에게 “슬로, 슬로, 세이브, 세이브”라고 말하며 페이스를 올리지 말 것을 충고했다는 일화는 올림픽의 미담으로 여러 책자에 등장한다. 손기정의 저서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133쪽, 가마다의 『일장기와 마라톤: 베를린올림픽의 손기정』 317쪽, 고두현의 『베를린의 월계관』 279쪽 등에 이 일화가 등장하였다.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의 베를린올림픽 기록영화인 『올림피아(Olympia)』에도 이 일화를 반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화면 속에서 하퍼는 나란히 달리는 손기정에게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듯이 손짓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퍼의 충고는 손기정의 회고이자 일반적으로 채택된 정설이다. 그러나 하퍼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시각에 따라 비신사적인 담합 시도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손기정 역시 하퍼의 충고 내지 제안을 의아하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경계하면서 달리기를 계속하였다(손기정, 1983: 134). 하퍼의 제안과는 무관하게 손기정 역시 이 날의 승부처를 후반으로 보고 경기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결국 손기정은 승부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28km~31km 구간에서 사발라를 제치고 하퍼마저 따돌린 뒤 줄곧 선두를 질주하였다. 그는 다른 선수에게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사력을 다한 레이스를 계속했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손기정이 우승을 향하여 마지막 질주를 거듭하는 동안 추격자로 간주한 선수는 단지 하퍼 만이 아니었으며, 지구력이 뛰어나고 후반에 강한 남승룡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다(손기정, 1983: 136).

손기정은 18km 지점을 4위(1시간 2분 19초)로 통과하였다. 처음부터 선두를 지킨 사발라의 기록은 1시간 00분 00초였다. 하퍼는 손기정보다 1

Intermediate Times and Intermediate Positions
Leading Groups

km.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4.0	Zabala ... 0:13:04.0	Dias 0:13:34.0	Lalande .. 0:	Brown ...	Meskense .. 0:
6.0	Zabala ... 0:19:41.0	Dias 0:20:11.0	Harper .. 0:20:21.0	Son 0:20:23.0	Brown ... 0:20:30.0
8.0	Zabala ... 0:26:18.0	Dias 0:27:01.0	Harper .. 0:27:36.0	Son 0:27:36.0	Brown ... 0:27:38.0
10.0	Zabala ... 0:32:30.0	Dias 0:33:15.0	Brown ... 0:33:55.0	Harper .. 0:34:10.0	Son 0:34:10.0
12.0	Zabala ... 0:39:21.0	Dias 0:40:29.0	Brown ... 0:41:15.0	Harper .. 0:41:17.0	Son 0:41:18.0
15.0	Zabala ... 0:49:45.0	Dias 0:51:25.0	Harper .. 0:51:55.0	Son 0:51:55.0	Brown ... 0:52:10.0
18.0	Zabala ... 1:00:00.0	Dias 1:02:12.0	Harper .. 1:02:18.0	Son 1:02:19.0	Enochsson 1:03:13.0
21.1	Zabala ... 1:11:29.0	Son 1:12:19.0	Harper .. 1:12:19.0	Dias 1:12:29.0	Enochsson 1:12:34.0
25.0	Zabala ... 1:23:17.0	Harper .. 1:24:49.0	Son 1:24:49.0	Brown ... 1:26:29.0	Coleman . 1:26:29.0
28.0	Zabala ... 1:34:57.0	Son 1:35:29.0	Harper .. 1:35:31.0	Coleman . 1:37:41.0	Brown ... 1:37:59.0
31.0	Son 1:46:20.0	Harper .. 1:46:36.0	Zabala ... 1:48:37.0	Coleman . 1:48:24.0	Tamila ... 1:49:41.0
33.0	Son 1:53:27.0	Harper .. 1:53:52.0	Muinonen 1:57:07.0	Tamila ... 1:57:07.0	Coleman . 1:57:07.0
35.0	Son 2:01:11.0	Harper .. 2:01:56.0	Nan 2:04:51.0	Muinonen 2:04:56.0	Tamila ... 2:04:56.0
37.0	Son 2:08:33.0	Harper .. 2:09:33.0	Nan 2:11:48.0	Tamila ... 2:12:13.0	Muinonen 2:12:13.0
39.0	Son 2:15:36.0	Harper .. 2:16:46.0	Nan 2:17:51.0	Tamila ... 2:18:11.0	Muinonen 2:18:21.0
40.0	Son 2:19:40.0	Harper .. 2:21:07.0	Nan 2:22:45.0	Tamila ... 2:23:40.0	Muinonen 2:24:03.1
41.0	Son 2:23:53.0	Harper .. 2:25:33.0	Nan 2:26:36.0	Tamila ... 2:26:58.0	Muinonen 2:27:59.0
Finish	Son 2:29:19.2	Harper .. 2:31:23.2	Nan 2:31:42.0	Tamila ... 2:32:45.0	Muinonen 2:33:46.0

그림 3. 선두그룹 구간별 기록. 출처: 베를린올림픽 공식 기록.

초 빨리 18km 지점을 통과했지만 의미 있는 리드는 아니었다. 21.1km 지점을 지날 때 손기정은 2위로 밀고 올라갔다. 기록은 1시간 12분 19초였다. 하퍼가 3위였지만 손기정과 기록 차는 없었다. 그는 25km 지점을 지날 때 1시간 24분 49초의 기록으로 2위에 오르며 손기정을 3위로 제쳐낼 정도로 위협적인 경기 운영을 하였다. 손기정이 28km 지점에서 1시간 35분 29초를 기록해 하퍼를 2초 차로 제치고 사발라(1시간 34분 57초)를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했을 때 하퍼도 늦추지 않고 따라붙었다. 이후 손기정이 사발라를 제치고 선두에 나선 다음 하퍼는 한번도 2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하퍼가 슬로 템포를 충고 내지는 제안할 때 손기정이 느낀 불신과 불안감이 정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기정은 28km와 31km 지점 사이에서 사발라를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사발라는 이 지점에서 급격히 경기 내용이 나빠지면서 손기정과 하퍼에게 추월을 당하였다. 선두 손기정은 31km 지점을

1시간 46분 20초에, 2위 하퍼는 1시간 46분 36초에, 3위 사발라는 1시간 48분 37초에 통과하였다. 사발라는 32km 지점에서 기권하였지만 반환점(21.410km)을 통과할 때 이미 난조를 보였다. 당시 마라톤 경기를 중계한 음성 기록에 따르면, 사발라는 반환점에서 몇 초 동안 길을 잃고 코스를 벗어나 풀밭으로 뛰려 했다. 하지만 경기 진행요원이 마라톤 코스로 돌아가도록 알려주었다(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1936). 일단 선두로 나선 손기정은 이후 줄곧 선두 자리를 지키며 완주하여 우승하였다. 공식기록으로 남은 구간별 기록은 33km 지점 1시간 53분 27초, 35km 지점 2시간 1분 11초, 37km 지점 2시간 8분 33초, 39km 지점 2시간 15분 36초, 40km 지점 2시간 19분 40초, 41km 지점 2시간 23분 53초였으며 42.195km의 공식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2였다. 환산하면 100m를 평균 21.23초의 속도로 달린 것이다. 2시간 29분 19초2는 역대 올림픽 마라톤 최고 기록이며 2시간 30분의 벽을 처음으로 돌파한 사례였다. 손기정이 육상 트랙 위에서 마지막

가속을 할 때 결승선 부근에 있던 미국코치가 수동시계로 결승선 100m 앞에서 기록을 재본 결과 12초대였다는 언급이 있지만(손기정, 1983: 137)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기록 영화를 통하여 손기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트랙을 질주하여 결승 테이프를 끊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음성 기록은 “그가 엄청난 막판 스피드로 질주하며 들어오고 있다. 트랙의 마지막 직선코스를 달리고 있다. 대단한 선수다. 최고의 힘을 지닌 천부적인 마라토너다. 1936년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이 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1936).



그림 4. 간호사가 건넨 물을 마시는 손기정.
출처: 손기정 자서전.

4. 경기 중 급수(給水)

손기정은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했을 때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손기정 자신도 “비스마르크 언덕에 오르니 간호부가 물을 권해 입을 한번 행구고 뱉었다.”라고 기록하였다(손기정, 1983: 137). 그는 “속이 타는 듯했지만 물을 마시지는 않았다. 물은 갈증이 심할 때 마실수록 더욱 기갈만 더해 배에 고통을 주기 때문이었다.”라고 적었다. 손기정이 자신의 초인적인 경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물을 마시지 않고 달렸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두현은 “우리가 마라톤하고 있던 때는 말이야, 될 수 있으면 수분을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했어.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을 좀 많이 마시면 컨디션이 흐트러져 몸이 무겁게 될까봐 겁냈던 시절이야.”라고 말한 손기정의 진술을 기록하고 있다(고두현, 1997: 283).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마라톤 경기 지식은 달리는 중에 물을 마시는 일을 금기시하였고, 손기정도 이러한 원칙에 충실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최윤철의 증언이 남아 있다. 최윤철은 손기정의 지도를 받은 마라톤 선수로서 1948년 런던올림픽에 한

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였다. 그는 35km 지점까지 2시간 6분 2초의 기록으로 선두를 지키다가 갑작스럽게 체력이 바닥나는 바람에 36~37km 지점에서 기권하고 말았다(The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XIV Olympiad London, 1948: 254). 최윤철은 2012년 7월 27일 『CBS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였는데, 런던올림픽 특집 방송을 위한 인터뷰에서 “물을 먹지 말라. (중략) 그것이 작전이었다. (중략) 20km에서 물 주는데 안 먹고 버렸다.”라고 술회하였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진 자료를 검토하면 손기정은 적어도 두 지점에서 물을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손기정이 기록한 대로 간호사가 건넨 물이 담긴 컵을 입에 대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한 장 있고 이는 손기정의 자서전에도 화보로 등장한다. 그런데 베를린올림픽 공식 기록집 645쪽에는 일본인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건넨 물 컵을 입에 댄 손기정의 사진이 등장한다. 사진 설명은 이 장면이 39km 지점에서 촬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손기정이 레이스 후반 적어도 두 차례 수분을 섭취했거나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다. 이밖



그림 5. 일본인 관계자가 건넌 물을 마시는 손기정.
출처: 베를린올림픽 공식 기록.

에 고두현이 “25km 지점에서 손기정은 한 모금의 물로 목을 축였다.”라고 서술하였지만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문헌에서 확인되지도 않는다(고두현, 1997: 283). 고두현 역시 “마루터에 올라서니 적십자 마크를 단 중년의 여성간호원이 선두로 올라온 손기정을 환영하면서 물을 권했다.”라고 손기정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두현, 1997: 295).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코스에는 대략 3km 간격으로 모두 열다섯 곳에 급수대가 설치되었다. 이 장소에서 선수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의료 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기록도 측정하였다. 그러나 급수대의 구체적인 위치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나 자료의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그림 1>은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급수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12년 7월 19일 베를린 스포츠 박물관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게르트 슈타인스(Gerd Steins)가 연구용으로 제공하였다. 두 장의 사진과 슈타인스가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면

손기정이 33.2km에서 34.2km 지점 사이의 카이저 빌헬름 톨 근처에 설치된 열세 번째 급수대에서 한 차례, 40km 지점을 앞두고 설치된 마지막 열다섯 번째 급수대에서 또 한 차례 물을 공급받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레나르츠의 논문 26쪽에는 남승룡으로 추정되는 선수가 왼손에 일장기를 든 일본인(Japanese helper)으로부터 물을 받아 마시는 사진이 게재돼 있다. 배경은 <그림 4>나 <그림 5>와 다른 제 3의 장소로 보인다.

마라톤 경기 막판 승부에 몰입한 손기정이 크고 작은 상황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기록에 따르면 경기 직후 손기정의 심신 상태는 양호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헤르타 린드스트롬(Hertha Lindström)은 당시 스웨덴의 기자로서 경기를 마친 손기정을 탈의실까지 찾아가 만났다. 그는 “탈의실에서 손기정을 발견하였을 때 그는 긴 의자에 누워 있었고 일본인 임원과 동료 선수들이 그의 주변에 둘러섰다. 손기정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를 인터뷰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Ekström, 1982: 183).

5. 경기복과 경기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손기정은 소매 없는 윗도리와 반바지로 구성된 경기복과 ‘가나구리 타비(金栗 足袋 Kanaguri Tabi)’라고 불린 일본 마라톤 팀 특유의 마라톤화를 사용하였다. 손기정이 입었던 경기복과 같은 종류의 경기복과 마라톤화가 일본 도쿄의 ‘치치부 기념 스포츠박물관(秩父宮記念スポーツ博物館)’에 보관·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이 소장한 경기복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세단뛰기에서 금메달, 멀리뛰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타지마 나오토(田島直人)가 사용한 경기복이다. 박물관은 ‘陸上ユニフォーム(田島直人); 육상유니폼(타지마 나오토)’라고

설명하였으며 규격은 길이가 730mm, 폭이 390mm, 무게는 230g이다. 베를린올림픽에 참가했을 때 나오토의 체격은 키 171cm, 몸무게 62kg이었다. 이 체격은 170cm, 60kg으로 기록된 손기정의 체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손기정이 사용한 경기복도 박물관에 전시된 경기복과 같거나 흡사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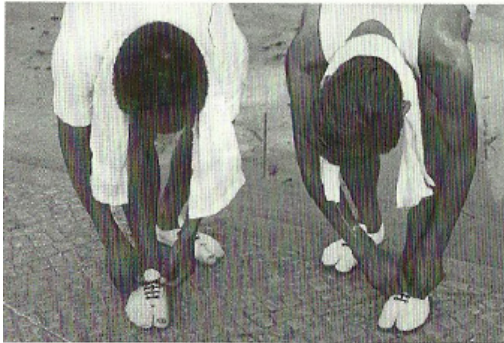


그림 6. 마라톤 경기화(Kanaguri Tabi)의 끈을 조이는 일본 선수들. 출처: Sportmuseum Berlin.

박물관은 손기정이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마라톤화도 소장하고 있다. 형겔에 고무 밑창을 댄 이 마라톤화에는 ‘孫基禎が履いた足袋と同モデル; 손기정이 신은 타비와 같은 모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규격은 길이 235mm, 폭 100mm, 깊이 45mm, 무게 250g이다. 한편,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에 있는 ‘손기정 기념관’도 손기정이 신었던 경기화와 같은 종류의 ‘타비’를 일본스포츠박물관의 기증을 받아 전시하고 있다.

손기정이 베를린에 도착해 훈련하던 시기에 많은 현지 육상 관계자들과 언론은 일본 선수들이 착용한 마라톤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베를린 스포츠박물관이 올림픽 개최 7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화보집에는 손기정과 남승룡으로 추정되는 일본 선수 두 명이 허리를 굽혀 마라톤화의 끈을 조이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그림 6>. 여기에는 “일본의 마라톤 선수들이 베를린에서 훈련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발가락 부분이 분할된 신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기화의 모양은 일본의 샌달에서 차용됐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Sportmuseum Berlin, 2011: 26).

타비란 일본어로써 뜻은 ‘버선’이다. 1902년 일본에 페스트가 유행하자 일본 정부는 학생들이 맨발로 달리지 못하게 하고 신발을 착용하도록 했다. 당시의 육상 선수들은 도쿄의 ‘하리마야(ハリマヤ)’라는 버선 가게에서 다다미방에서 신는 버선을 사 신고 경기를 했다. 당시 도쿄 고등 사범학교(현재 쓰쿠바 대학) 학생으로, 훗날 ‘일본 마라톤의 아버지’로 불린 가나구리 시조(金栗四三)도 하리마야의 고객이었다. 당시에는 신발을 신고 달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일본인에게 익숙한 버선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스팔트 포장에 없는 흙이나 자갈길을 버선만 신고 달리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버선 바닥을 두 겹 세 겹으로 보강하고 장거리에 견딜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마라톤화의 뿌리이며, 상품화와 함께 ‘가나구리 타비’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나구리 타비는 ‘전후 마지막 마라톤 버선 주자’로 불린 다나가 시게키(田中茂樹)가 195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도 사용되었다(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online).

6. 현지 언론의 시각

손기정은 베를린에서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훗날 “올림픽에서 우승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했다.”라고 말하였다(Terjesen · Planck, 2007: 603). 베를린올림픽 기간 동안 한결같았던 태도와 행동, 한글 서명과 같은 자료들이 손기정의 강인한 민족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레나르츠는 “우승자 손기정과 3위를 차지한 동메달리스트 남승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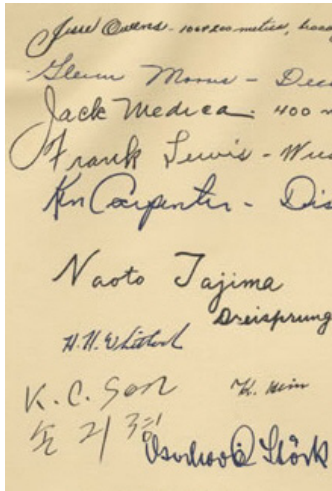


그림 7. 베를린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서명.
출처: 손기정기념관.

(Shoryu NAN으로 표기·연구자 주)은 일본인이 아니고 1910년에 일본에 점령당한 한국 태생 (born in Korea)이었다. 베를린에서 손기정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서명을 할 때 그는 언제나 한국어로 이름을 쓰고 조국의 지도를 그려 넣었다.”라고 설명하였다(Lennartz, 2004: 21). 손기정의 이러한 노력이 당시의 독일 언론에 영향을 준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리키 W. 로(Ricky W. Law)는 “마라톤에서 우승한 다음 손기정의 사진이 신문의 첫 페이지를 뒤덮었고 미디어가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손기정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지는 못했다.”라고 기술하였다(Law, 2009: 164~165). 앙투안 페로드(Antoine Perraud)도 “손기정은 기자와 만나 인터뷰할 때마다 자신이 한국인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서술하였다(Perraud, 2011).

이와 같은 현상은 손기정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현지 언론이 손기정의 정체성에 대해 무관심한 데다 자세한 정보도 없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로는 “독일 언론은 마라톤이 시작될 때까지 손기정에 대해 큰 기대

를 하지 않았다. 마라톤이 끝난 다음날 신문은 ‘일본인 손, 놀라운 승리자(Son, the Japanese, the surprise victor)’라고 보도하였는데, 이전에 손기정이 2시간 30분의 벽을 깬 선수라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으면서도 경기 결과를 가장 큰 이변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지적하였다(Law, 2009: 175). 한편, 독일역사박물관(DHM)과 독일방송기록보관실(DRA)이 소장한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중계방송 실황 녹음 중에 손기정을 ‘한국인 학생 (koreanische Student)’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다. 중계 아나운서는 “그 한국인 학생은 세계의 강자들을 물리쳤다(der koreanische Student, er hat die Streitmacht der Welt zertrümmert).”라고 외쳤다. 당시의 정황을 감안하면 이 언급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민족적·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분적으로 손기정이 분투한 결과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기정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선 모습은 올림픽 공식 기록집과 리펜슈탈의 기록 영화 등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당대의 보도나 문헌 가운데 그 의미를 설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베를린올림픽 공식 기록 영화 『올림피아』를 제작한 리펜슈탈의 기록은 당시 독일과 서구의 손기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리펜슈탈은 “일본 선수들의 시상식은 감동적이었다. 그들은 월계관을 쓴 머리를 숙이고 마치 종교적인 희열(喜悅)에 빠진 것 같은 모습으로 자국의 국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였다(Riefenstahl, 1990: 271). 그들이 보기에 손기정은 망국의 한(恨)에 사무친 한국인이 아니라 애국심 충만한 일본인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훗날 연구자들의 노력과 손기정의 국적 회복을 원하는 한국 체육계의 집념

등이 어우러져 손기정의 민족의식이 재조명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당대에 보이지 않았던 손기정의 수상 자세에 대한 언급이 훗날 빈번하게 논문이나 언론의 보도 형식으로 등장한 이유도 같은 데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움직임은 손기정이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 행사장에 성화봉을 들고 춤을 추는 듯 신명난 모습으로 입장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된 뒤 확산된 측면이 있다(You, 2008: 3).

베를린올림픽 당시의 독일 언론은 일본 선수의 신체적 특징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로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는 무라코소 고헤이(村社 講平)가 1만m 경기에 출전했을 때 그의 작은 키(short)를 집요하게 강조하였다. 그는 키 165cm의 무라코소를 주목하며 “이 황인종(yellow man)은 종종걸음을 치며 선두에 나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 선수들이 작은 일본 선수(short Japanese)와 경쟁한다. 작고 용감한 일본 선수는 이제 4위로 달린다.”라고 중계하였다. 또한 『올림픽 피아』에 등장하는 해설가도 “저 작은 일본 선수(short Japanese)가 다시 한 번 치고 나옵니다.”라

고 설명하였다(Law, 2009: 171). ‘작은 일본인’이라는 표현은 당시 라디오나 영화의 중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상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각은 손기정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튿날 신문(Völkischer Beobachter)은 ‘작은 일본인 손기정(the short Japanese Son)’이라고 표현하였다(Law, 2009: 172). 손기정은 일반적으로 작고 마른 선수로 표현되었지만 사실 경쟁자들에 비해 체격이 작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마라톤 후반 레이스에서 손기정과 선두 다툼을 하다 뒤쳐져 은메달에 머무른 하퍼의 체격은 키 168cm에 몸무게 58kg으로, 손기정(170cm·60kg)에 비해 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은 손기정에 대해서만 작고(short) 가볍다(light)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였다(Law, 2009: 173).

III.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한 마라톤 선수 손기정의 경기 내용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손기정이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1936년 8월 9일 베를린의 날씨는 30℃가 넘는 고온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국내 문헌과 일치하지 않았다. 마라톤 경기가 시작될 때의 기온은 22.8℃, 끝났을 때의 기온은 21.0℃였으며 날씨는 맑고 건조했다. 마라톤 경주로는 평탄한 편으로 표고차 48.4m 정도였다. 각종 국내 문헌은 33.2km~34.2km 구간 또는 39km 지점부터 나타나는 마지막 오르막 구간을 손기정이 매우 고통스럽게 달린 ‘비스마르크 언덕’으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 비스마르크 언덕은 나타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의 문헌 및 현지의 지리 정보를 종합할 때 마라톤 경기 막바지의 특정 구간으로서 선수단(특히 일본의) 사이에만 통용된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손기정(왼쪽)과 하퍼.
출처: 베를린올림픽 공식 기록.

손기정이 속한 일본 선수단은 경기를 앞두고 20km 내지 30km에 달하는 거리주에 주력하였다. 반면 손기정보다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힌 사발라는 5000m와 1만m 위주로 훈련했다. 손기정은 경기복에 382번을 달고 '가나구리 타비'라고 불린 일본 고유의 마라톤화를 신은 채 경기에 출전하였다. 손기정은 21.1km 지점을 지날 때 처음 2위로 올라섰고, 28km와 31km 지점 사이에서 사발라를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공식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2로, 역대 올림픽 마라톤 최고 기록이며 2시간 30분의 벽을 처음으로 돌파한 사례였다. 손기정은 경기를 하는 동안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현존하는 사진 기록을 검토하면 적어도 두 지점에서 물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 과정에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열다섯 곳에 이르는 급수대 및 기록석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베를린올림픽을 취재하는 서구 언론은 손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지는 못했다. 서구 언론은 손기정의 정치적·민족적 정체성에 큰 관심이 없었고, 일본인의 신체적 특징에 유난히 주목하면서 손기정에게도 '작은 일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만 마라톤 중계방송 실황 녹음에서 손기정을 '한국인 학생'이라고 부른 사례가 발견되며 이는 부분적으로라도 손기정이 분투한 결과라고 유추할 여지도 없지 않다.

참고문헌

- 강형구(2004). **손기정이 달려온 길**. 서울: 서울셀렉션.
- 鎌田忠良(1982). **マラソン・ランナ-孫基禎と日章旗抹消事件**. 潮, 282, 226~260.
- 鎌田忠良(1988). **日章旗とマラソン: ベルリン・オリンピックの孫基禎**. 東京: 講談社.
- 高橋民子(1998). **孫基禎さんの金メダル**. 歴史地理教育, 584, 68~73.
- 고두현(1997). **베를린의 월계관**.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 고두현(2002). **도전하는 한국인 손기정**. 서울: 교원.
- 곽형기·이현정(2009). 마라톤 손기정의 체육사적 의미. 한국체육과학회지, 18(3), 3~13.
- 김용제(1936). **세계제일 마라톤왕 손기정 우승기**. 경성: 명문당.
- 김화성(2011). **자유와 황홀 욕망**. 서울: 알렘.
- 大日本體育協會(1936). **第十一回 올림픽大會報告書**(1936년 베를린)
- 동아일보** 1936년 8월 11일자 1면. 世界制覇의 凱歌.
- 柳美里(2012). 波音 孫基禎さんのこと. 潮 643, 37~39.
- 박종진·김동규(2012). 한국 마라톤의 전개와 민족사적 의미.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3), 185~198.
- 富澤有爲男(1942). **民族の祭典**. 東京: 大都會書房.
- 西村 美智子(2011). **孫基禎の金メダル - 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交流-実践18**. 歴史地理教育 777, 95~99.
- 손기정(1983).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서울: 한국일보사.
- 孫基禎(1985). **あゝ月桂冠に涙**. 東京: 講談社
- 손기정(1988). **운동장에 숨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서울: 乙酉문화사.
- 손환(2004).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3(2), 3~15.
- 손환·이상우(2007). 남승룡의 생애와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46(5), 45~53.
- 五島隆夫·小林正一(1988). 女の最終ランナ-孫基禎の無念. 朝日ジャーナル, 30(46), 88~90.
- 오세발(1992). **저 월계관을 향하여**. 서울: 백호문화사.
- 이태영(2012). **불멸의 혼 손기정**. 서울: 대한체육회.
- 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홈페이지. <http://www.joc.or.jp/olympic/memorial/20060511.html> [accessed 25th. Jul. 2013]

- 주경희(2007). **위대한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채백(2006).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9, 7~39.
- 천정환(2010).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뽕을 차라: 스포츠 민족주의와 식민지 근대**. 서울: 푸른역사.
- 최인진(2006). **일장기를 지우다 :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의 새로운 진실**. 서울: 신구문화사.
- 하정희(2012). **스포츠영웅 손기정의 체육활동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체육인동우회(1996). **겨레와 함께 뛰었다 손기정, 그 힘찬 발걸음**. 서울: 체육인동우회.
- David G. McComb(1998). *Sports,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 G. McComb(2004). *Sports in World History*. New York: Routledge.
- David Martin&Roger Gynn(2000). *The Olympic Maratho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 Deutsches Rundfunkarchiv(1936). *Stimmen des 20. Jahrhunderts. XI. Olympische Sommerspiele 1.-16*. Berlin: Herausgeber.
- Karl Lennartz(2004). Kitei Son and Spiridon Louis, Political Dimensions of the 1936 Marathon in Berlin. *Journal of Olympic History* 12, 1~16.
- Organisationskomitee Für Die XI: Olympiade Berlin 1936 e.v.(1936). *The 11th Olympic Games Berlin 1936 Official Refort*. Berlin: Wilhelm Limpert.
- Perraud Antoine(2011). *Racism and sport, a sorry story of modern times*. Mediapart, 14th. May, 2011. <http://www.mediapart.fr/journal/france/130511/racism-and-sport-sorry-story-modern-times> [accessed 25th. Jul. 2013]
- Ricky W. Law(2009). Runner-up: Japan in the German Mass Media during the 1936 Olympic Games. *Southeast Review of Asian Studies* 31. 164~165.
- Riefenstahl Leni(1938). *Olympia 1: Fest der Völker*. Berlin: Leni Riefenstahl-Produktion.
- Riefenstahl Leni(1990). *Memoiren 1902-1945*. Berlin: Ullstein.
- Siri Terjesen&Max Planck(2007). The Entrepreneurship of Mega-Sporting Events: An Analysis of The 2006 IAU World Cup. *AGSE 2007*. 603~615.
- Sven Ekström(1982). Berlin 1936. *Olympic Review* 174. 181~183.
- The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XIV Olympiad London(1948). *The Official Report Of The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XIV Olympiad*.
- Will LePage(2011). *Optimum Temperature for Elite Running Performance*. The Jefferson City Road Runners Club.
- Wong Tak Shing(2009).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Long Distance Running Training*. for Standard Chartered Hong Kong Marathon Workshop.
- Yeanmi You(2008). *The Iconography of KEE-CHUNG SOHN in Korean Cultural Memory*. Illinois 대 박사학위논문.
- Yeanmi You(2009). Oh! A Sad Winner!. *Qualitative Inquiry*, 15(7). 1293~1295.

논문투고일 : 2013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3년 9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9월 23일